News & Views

일본 기업 R&D 費用 삭감 움직임

-국제 공동 프로젝트마저 위협받을지도-

일본 경제의 침체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믿음직한 민간 부담 연구 기금이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지난 2년 동안 동경증권 시장이 슬럼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투자 감축의 여파가 R&D에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R&D 지원금 구조 전체 연구비의 3/4 이상을 개인 기업들이 지원하는 것에서 볼 때 기업들의 연구비 지원 감축 계획은 일본 전체, 나아가 세계의 R&D활동에 위축을 가져올 것이 확실하다.

예를 들면, 일본의 선두 소프트웨어 회사인 아스키社가 5월 말경 멀티미디어 개발 센터 개설 계획을 1년 후로 미룰 것을 발표했는데, 회사 관계자의 말로는 당장 이익을 주지 못할 부분에 대해 예산을 삭감한 조치라고 발표했다. 대기업들 중에는 연구 부서의 예산 자체를 삭감하는 곳도 속속 증가하고 있다. 금년 초, 미쓰비시 전기가 최근 10년 간 매년 10%씩 증액시켜 온 연구 지원 예산을 오히려 삭감할 것임을 발표했으며, 경쟁자인 후지쓰도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동결할 것임을 발표했다. 히다치도 예산 동결 의사를 발표했는데, 이는 이 회사가 기초 연구 부문을 지원해 온 인공 지능, 초전도체 부분의 연구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아직까지는 예산 삭감을 겪은 부문은 대부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프로젝트에 국한되었으나, 착수 예정인 야심 있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일본 경제가 회복되기 전까지 유예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 근거로서 최근 세계 상황에 비추어 가장 투자 증액이 필요한 오염 방지 기술 개발 연구조차 연구비 동결이 진행될 것을 경제 분석가들이 내다보고 있다.

이런 경향은 일본이 오랫동안 주체적으로 진행해 온 '연구의 국제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은 현재 117개 기업들이 다른 나라들과 손잡고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80년대 후반에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듯 최근까지 겨우 2개 회사만이 미국에 실험실을 오픈한 실정이다.

우리로서는 예산 삭감에 대해 우선 떠오르는 것이 인원 감축이겠지만, 그렇지만 일본의 과학자 자신들은 인원 감축에 의한 해직은 염려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일본의 '종신 고용' 제도를 믿으며, 국가적으로 볼 때 아직도 과학 기술 종사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해고보다는 당장에 이익 창출이 가능한 부서로의 이동 정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이 글은 일본 "日刊工業新聞" 6월 1일자를 기초로 쓰여졌음).

박동현(동향 분석 연구실)